

○○○씨 파보 跋文

옛부터 東方禮義之國으로 自處하고 살아온 先祖들은 우리에게 嚴格하고도 자랑스러운 儀禮法道를 遺産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없이 所重하지만 번거롭기도 하여 갖가지 弊端을 自招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서 外面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宗族의 系譜를 통하여 父系를 中心으로 血緣關係가 이루어지며 宗族의 歷史가 만들어지고 그 血統을 實證하는 것이 族譜인 것입니다. 또한 宗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活動을 活潑히 하여 秩序 있는 統制가 되며 歷史의 宗中을 自覺하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宗人意識을 鼓吹시키고 아울러 民族史의 한 側面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宗族의 一員이라는 自矜心을 갖게 되어 이로 인하여 共同으로 祭祀參與를 誘導하여 後孫으로써 役割을 分擔하도록 합니다.

急變하는 現代社會에 變化하는 宗族의 모습을 關心있게 볼 수 있는 컴퓨터에 入力하여 그야말로 살아있는 生動感 넘치는 族譜의 機能을 充分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戶主制 廢止 法案이 國會에서 論議될 정도로 뿌리의 重要性을 忘却하는 寒心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實情입니다.

昨今 同樞公派宗親會에서는 二年前부터 常勤理事이신 重哲(海州)씨와 斗晟顯門님(水原)두분이 全心全力으로 努力하시어 하루에도 몇 번씩 區廳에 戶籍騰本을 申請하고 點檢을 재촉하면서 舊 族譜를 根據로 補完할 부분을 修正하고 새로운 事實을 追加 入力하면서 熱心이 努力하신 結果 所重한 同樞公派譜가 誕生하는 契機가 되었습니다. 특히 本系와 外孫을 모두 記載하여 한자의 誤字도 생기지 않도록 全力을 하였다는 것이 고마울 뿐입니다.

마음속에 支柱 役割을 하여주는 族譜는 뿌리라는 概念을 胎生的으로 自身の 出生에 대하여 關心을 가질 수 있으며 重要性보다는 귀찮은 存在로 外面 당할 수 있지만 언젠가 生活속에 쫓기다 보면 나를 낳아준 故鄉과 自身の 姓에 대하여 알고 싶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千年의 宗史가 이어 내려온 우리 氏○○○ 門中の 最初の 族譜는 世祖二年(一四五六)年 景泰丙子에 景泰譜를 始作으로 戊申譜를 거쳐 壬戌耽羅譜. 丁巳(一七三七)年 靈覺譜 四卷 後丁巳譜(一七九七年) 十卷, 後戊申譜(一八四八年) 十五卷. 壬寅譜(一九〇二年) 二十三卷, 辛丑譜(一九六一年) 四卷, 戊辰譜(一九八八年) 七卷으로 만들어 그 系譜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始祖로부터 始作하여 千年이 가까워진 오늘 一族도 많아지고 사는 곳도 넓어지며 收單하기도 어려워 단순히 系譜를 充實하게 記錄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앞으로 새로이 만들어야 할 새로운 族譜를 한자의 誤字도 없는 完璧한 作業에 基礎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週期的으로 變化하고 家族의 모습을 派譜를 통하여 느끼고 보면서 求心點이 될 수 있는 母體로써 마음속에 支柱役割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持續的인 宗事に 깊은 關心과 敦睦을 보이신다면 先祖님의 陰德으로 모든 일이 萬事亨通하여 所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氏가 名門家로써 永遠히 發展하도록 모두 合掌하여 祝願합니다.

西紀 二〇〇五年(乙酉) 五月 日

同知中樞府事 十七代孫 ○ ○ 謹跋